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韓美 FTA에서 노동 기준 강화 요구 예상
- 미국 2006년 무역적자 사상 최고치 기록

경영 노트

- 사상 최대의 성차별 소송에 직면한 월마트

사회 트렌드

- 우리 국민의 42%가 과체중
- 청소년의 14% 인터넷 중독

저널 브리프

- 동유럽이 뜨고 있다

洗心錄

- 나폴레옹 리더십

□ 韓美 FTA에서 노동 기준 강화 요구 예상

-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에서 복수노조 허용 등 국제노동기구(ILO) 표준에 상응하는 노동 기준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美 의회가 韓美 자유무역협정에서 노동 분야 요구사항으로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규약을 포함하여 행정부에 전달하였기 때문임
 - 동 요구안이 타결되면 우리나라가 노사정 합의에 의해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더라도 미국이 국제노동기구에 미달한다고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 있음

- 미국이 이같은 제안을 요구할 경우 두 가지 정도의 쟁점만을 남겨놓고 있는 노동 분과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큼
 - 그동안 재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단체 협약 변경 금지, 파업 요건 강화 등 노동기준 강화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하여 왔음

□ 미국, 2006년 무역적자 사상 최고치 기록

- 미국의 2006년 무역적자는 2005년 7,167억 달러에서 6.5% 증가한 7,636억 달러로 5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 2006년 미국의 수출은 1조 4,380억 달러로 전년대비 12.8% 증가하였으나 수입도 2조 2,010억 달러로 10.5% 증가함
 - 고유가와 중국과 일본에 대한 적자폭의 증가로 인하여 2005년에 이어 2년 연속 무역적자 7,000억 달러를 초과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 중국산 소비재 수입이 급증하여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는 2,325억 달러로 전년대비 310억 달러 증가,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는 전년대비 7.2% 증가한 884억 달러를 기록함
 - 국제 유가의 상승도 미국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미국의 무역적자는 무역상대국이 확보한 자금을 미국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으로 무역적자 지속 가능성과 이에 따르는 달러화 급락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음

□ 사상 최대의 성차별 소송에 직면한 월마트

- 최근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급여 및 승진에서 여성근로자를 성차별해온 혐의로 집단소송에 직면함
 - 월마트가 패소할 경우, 200만 명에 가까운 전·현직 여성 근로자에 대한 보상비용이 수십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됨
- 미국에서는 인종차별 및 성차별로 배당한 사례가 수십 건에 이르며, 매년 적지 않은 기업들이 다양한 유형의 집단소송에 시달리고 있음
 - 과거에도 홈디포('97), 보잉('04) 등 대기업들이 여성근로자에 대한 성차별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당해 배당한 사례가 있음
 - 한편 1997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기업의 증권집단소송에 따른 보상비용이 260억달러에 달하며, 건당 평균 3,500만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 내 기업들의 주요 집단소송 사례 >

기업	연도	소송 내용	결과
홈디포	1997	-여직원에 대한 보수와 승진에서 차별	1억4,000만 달러 배상
코카콜라	2000	-종업원에 대한 인종차별	1억9,000만 달러 배상
보잉	2004	-여직원에 대한 보수와 승진에서 차별	7,250만 달러 배상
모건스탠리	2004	-골프 등 고객 접대에서 여직원 배제	5,400만 달러 배상

- 우리의 경우도 올해부터 모든 상장회사들에 대하여 집단소송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향후 기업들이 집단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소비자단체 등 NGO의 기업 감시 활동이 갈수록 강화되면서 다양한 소송 요인으로 소송부담 및 기업이미지 저하가 우려되고 있음
 - 특히 증권집단소송이 시행되면 지배구조 및 회계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장법인의 피소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 향후 다양한 유형의 집단소송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함
 - 환경과 건강, 성차별, 개인정보 유출 등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원인도 다양화되는 만큼 집단소송의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이 필수적임
 - 집단소송에 따른 보상비용 등 기업 부담뿐만 아니라, 기업이미지 및 시장신뢰도 저하에 따른 피해 등에 대한 다각적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함

□ 우리 국민의 42%가 과체중

- 15세 이상 국민 10명 중 4명이 과체중이며, 국가별 과체중 순위는 세계 123위로 계속 악화되고 있음
 -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 194개 국 1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과체중 인구 비율은 2002년(35.5%)에 비해 6.5%포인트 증가한 42%이며, 순위도 136위에서 123위로 13단계 오름
 - 북한은 2002년과 같은 132위이지만, 과체중 인구 비율(39.4%)은 2002년(37.5%)에 비해 1.9%포인트 증가함
- 일본, 중국 등 주요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과체중 인구의 증가 속도가 빨라 주의를 요하고 있음
 - 미국의 과체중 인구 비율은 74.1%로 9위이며 영국은 68%로 28위를 보여 서구 선진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임
 -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비만이나 과체중 인구는 적지만, 과체중 인구의 증가 속도가 빨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 청소년의 14% 인터넷 중독

- 청소년의 31.8%가 인터넷 이용 시간이나 빈도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수준이며, 14%는 치료와 상담이 필요한 '인터넷 중독 위험 상태'임
 - 청소년 중 '인터넷 중독 위험자' 비율은 성인(7%)의 2배에 달함
 - 조사 대상 청소년의 2.1%는 즉시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자'이며, 예방 상담과 자기관리가 필요한 '잠재적 위험자'는 11.9%임
- 인터넷 중독 위험자 비중은 줄고 있으나, 청소년의 평균 중독 증상은 심화되고 있음
 - 인터넷을 과다하게 이용하는 '중독 위험자군' 비중은 2005년 15.3%에서 2006년에는 14%로 1.3%포인트 줄었음
 - 하지만 인터넷 이용으로 건강이 나빠지거나 가족들과 마찰을 빚는 정도를 보여주는 점수도 전년보다 4.2% 높아, 인터넷 이용으로 수업을 빠지거나 약속을 어기는 일탈 행동도 전년 대비 6.3% 높아짐

□ 동유럽이 뜨고 있다*

- 올해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새로운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음
 - 유럽연합 내의 무관세 혜택, 물류 비용 및 인건비 절감 등의 이점으로 동유럽 국가들에 매력을 느끼는 글로벌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음
- 동유럽 국가들은 특히 자동차, 건설, R&D 분야에 대한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의 투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유럽, 아시아, 미국의 자동차업계로부터 수십억 달러가 넘는 신규 투자 유치가 힘입어, 2010년 동유럽의 자동차 생산규모는 340만 대로 전망됨
 - 이는 동유럽 국가들이 1950년대부터 강철, 화학, 중화학공업을 바탕으로 한 자동차산업 및 부품산업의 토양이 갖춰진 점이 매력으로 작용함
 - 세계 10대 R&D 투자지역으로 헝가리, 폴란드, 체코가 꼽힐 만큼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어, 삼성, 소니, 필립스 등 패널업체의 진출이 활발함
- 한편 현지 인건비 및 부동산가격의 상승, 사회간접자본의 미발달, 원스톱 행정서비스 부족 등이 동유럽 국가들의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 헝가리나 체코 같은 동유럽 선발 국가의 인건비가 증가하면서, 루마니아나 불가리아 같은 후발 국가로 생산 기지가 이전되고 있는 실정임
 - 경제적으로 볼 때 협소한 내수 시장으로 인해 외부 의존도가 크며, 도로 등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아직 열악한 상황임
 - 또한 슬로바키아나 헝가리처럼 비교적 서비스 마인드가 정착된 곳에서 조차 정부와 민간기업 간의 일관성 있는 협조 시스템이 미흡함
- 유럽 시장의 교두보인 동유럽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의 투자 관련제도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충분한 사전 조사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함
 - 성공적인 유럽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동유럽 진출에 앞서 시장 경쟁력에 관련된 성공 요인과 위험 요소를 충분히 검토한 전략 수립이 필요함
 - 다양한 정보 채널 확보를 통한 현지 상황의 정확한 분석이 필수적임

* 이 글은 『주간조선』(2007.1.29)에 실린 글을 요약, 재구성한 것임.

□ 나폴레옹의 리더십

“사자가 이끄는 백 마리 양의 무리가 양이 이끄는 백 마리 사자 무리를 이긴다.”

백 마리 사자의 무리와 백 마리 양의 무리가 싸운다면 백 마리 사자의 집단이 반드시 이기게 된다. 하지만 만일 양쪽에 우두머리를 정해 양이 사자의 무리를 이끌게 하고 사자가 백 마리 양의 무리를 이끌게 한다면, 사자가 이끄는 양의 무리가 단연코 유리하다고 한다. 조직의 힘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수장의 능력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이는 예부터 유럽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로 나폴레옹은 이 문장의 신봉자였다고 한다. 유명한 컨설턴트인 제리 마나스는 나폴레옹의 리더십을 6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1. 예측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비하되 시간을 지체하지 말라.
2.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않도록 목표, 메시지, 프로세스를 단순화해라.
3. 빠른 속도로 실행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를 내편으로 만들어라.
4. 소속원들에게 자부심을 갖도록 능력을 공개적으로 인정해라.
5. 계획은 항상 유동적일 수 있도록 지휘관에게 결정권을 부여하라.
6. 인격이 뒷받침된 리더가 됨으로써 상호 신뢰를 구축하라.

지도자의 역할은 전략을 내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내부 구성원의 개별적인 전력이 압도적으로 뒤떨어지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바로 지도자가 입안하고 실행하는 전략의 우열이 승패를 가른다는 것이다. 경영 현장은 전쟁터에 비유되기도 한다. 리더십은 조직의 발전 및 성패를 결정짓는 큰 변수이기 때문에 큰 조직이든 작은 조직이든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나폴레옹의 6가지 리더십을 자신에게 비추어 볼 필요가 있다.

渴者不思火、寒者不求水 (갈자불사화, 한자불구화)

(목마른 사람은 불을 원하지 않고 추운 사람은 물을 구하지 않는다)

- 위응물(韋應物, 737~804) : 중국 唐代 시인